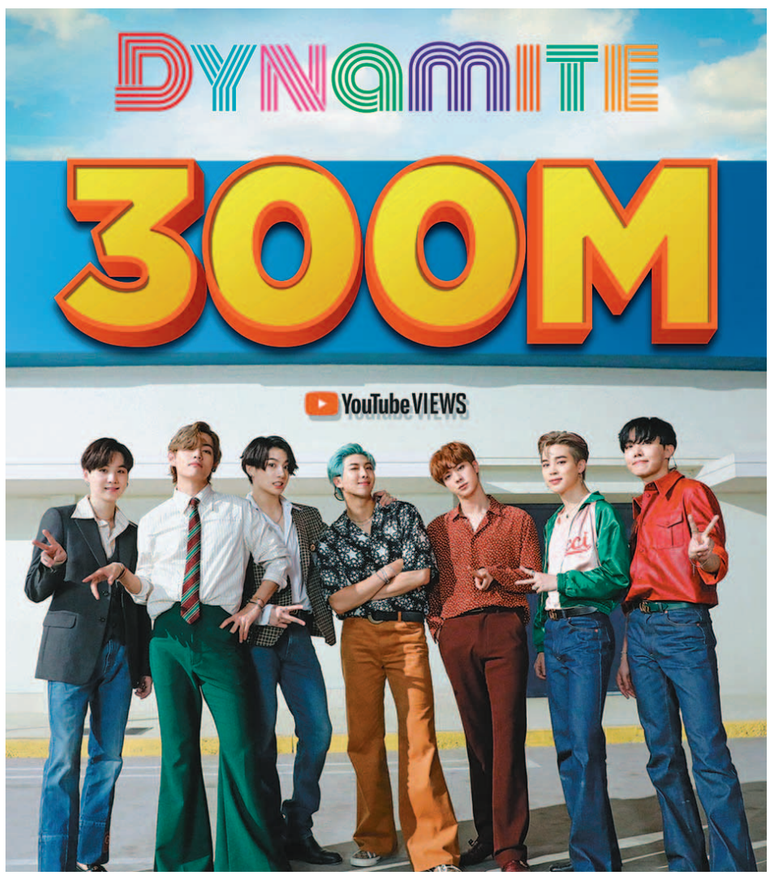
BTS주식 청약, 아미도 움직이나

자금력 있는 중장년층 팬들 많아
참여 정도 따라 경쟁률·주가 영향
일반투자자 20% 물량 배정 변수

'방탄소년단 주식'에 대한 관심 속에 팬덤 '아미(ARMY)'들이 공모주 청약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이들이 온라인상에서 관련 주식을 갖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면서 일각에서는 그 참여 정도에 따라 '기업 주식공개상장(IPO) 최대 대어'인 '방탄소년단 주식'의 청약 경쟁률과 주식 가치를 더 높일 것으로 본다. 팬들은 주식을 갖게 되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방탄소년단이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핫(HOT) 100' 1위를 차지한 경제적 효과가 1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코스피 상장과 이를 앞둔 공모주 청약 예고로 증권가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팬덤의 가세도 주목된다. 사진은 이들의 신곡 '다이너마이트'의 유튜브 조회수 3억건 돌파 이미지. 사진제공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아미 "청약 참여 고민 중"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엔먼트가 10월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5·6일 713만주를 공모한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 공모가 희망 범위는 10만5000~13만5000원이다. 이를 토대로 빅히트의 최대주주 방시혁 대표와 그로부터 주식을 받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주식부자'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탄소년단과 빅히트의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 관심이 뜨겁고, '개미'로 불리는 일반 소액 투자자들의 청약 경쟁도 치열해질 것임을 미리 보여준다.

여기에 팬덤이 가세한다면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다. 마케팅사를 운영하는 40대 여성 팬 이 모 씨는 "이번 청약에 참여할지 여부를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팬 연령층, 20~50대까지 다양…청약 관심 입증

실제로 다양한 지표는 방탄소년단 팬층의 일단을 보여준다.

지난해 2월 개봉한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실황 영화 '러브 유어셀프 인 서울'에 대해 멀티플렉스 CGV는 서울 관객 중 40대가 28.2%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20대(20.3%), 30대(16.5%), 10대 이하(14.9%), 50대 이상(8.3%) 순이었다.

또 한국리서치의 안마의자 관련 설문조사도 이를 유추하게 한다. 지난해 안마의자 보유자 500명 중 20~30대가 34%로, 60대 이상보다 많았다. 이에 안마의자 브랜드 바디프랜드는 올해 4월 방탄소년단을 광고모델로 내세워 5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방탄소년단 효과'가 적지 않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방탄소년단의 폭넓은 연령층의 팬 특히 소비력과 자금력을 갖춘 이들이 공모주 청약에도 참여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다만 일반 투자자에게 20% 물량만 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고, 약정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탁해야 하는 '보증금'인 증거금의 규모가 커질 경우 각 개인이 가져갈 주식수가 적어진다는 점이 변수다. 최근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팬들의 참여 정도가 관심을 모은다.

●"1조7000억원 효과…국가 이미지 제고 등 더하면 ↑"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빌보드 1위를 차지한 경제적 효과가 1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빅히트의 매출 규모를 비롯해 한국은행 투입산출표,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구글 트렌드 검색량 등을 종합한 추산 수치다. 직접 매출 2457억원, 화장품·식료품·의류 등 연관 소비재 수출 3717억원 등 생산 유발 효과 1조2324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4801억원 등 모두 1조7125억원이다. 고용 유발 효과도 7928명에 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오프라인 콘서트를 열지 못해 온라인 콘서트 매출 규모만 적용했다. 또 관련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 등을 뺐고, "국가 이미지, 국가 브랜드 등 상향에 따른 상승효과 등을 추가로 고려하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밝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걸그룹 블랙핑크가 최근 신곡 '아이스크림' 뮤직비디오 메이징 영상으로 귀여운 이미지를 뽐내고 있다. 사진제공 | YG엔터테인먼트

BTS·블핑 비하인드 뮤비도 '빵' 터졌다

BTS NG 영상·무도 따라잡기 인기
블랙핑크 포인트 안무·친근한 매력

'오피셜'만이 아니다. '비하인드 영상'도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신곡의 공식 뮤직비디오와 함께 촬영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공개해 많게는 5000만 조회 수를 넘기며 화제몰이를 하고 있다.

'비 사이드'(B-side)라는 부제로 지난달 25일 공개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 촬영 영상이 7일 현재 유튜브 조회 5397만뷰를 넘겼다. 해당 영상은 리허설 모습과 NG 장면을 한 데 모았다. 멤버들이 저마다 재미있는 포즈를 취하거나 서로 장난을 치는 모습을 담았다. 팬들에겐 이만한 '팬 서비스'가 없다. 멤버들이 "어깨춤을 추며 녹음했다"고 말할 만큼 신나는 디스코 팝 장르의 노래에도 딱 들어맞는다.

특히 지민과 정국, 뷔가 MBC 예능프로 그램 '무한도전' 속 한 장면을 따라하는 포즈가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2013년 방영한 '남자다잉' 특집에서 방송인 노홍철이 우스꽝스럽게 화장품을 바르는 장면과 비교하는 게시물도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무한도전' 팬이라 밝힌 정국은 "장난삼아 촬영한 리허설 장면이 사용돼 우리도 놀랐다"며 즐거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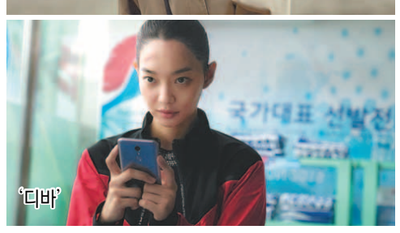
블랙핑크는 '아이스크림' 뮤직비디오 메이킹 필름을 지난달 29일 공개해 7일 현재 1615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멤버들이 촬영장 곳곳과 포인트 안무를 직접 소개하는 모습이 담겼다. 주로 카리스마 넘치는 콘셉트를 유지했던 멤버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친근한 매력을 물씬 풍기며 새롭게 내세운 귀여운 이미지가 더욱 와 닿는다는 호평도 나왔다.

해외 팬들의 반응을 담은 '리액션 영상'도 이어지시고 있다. 공식 뮤직비디오 못지않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관심에 힘입어 메이킹 필름은 공식 뮤직비디오와 함께 유튜브 인기 차트에도 이름을 올렸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남매의 여름밤'


'69세'


'디바'

10대·노인·여성 캐릭터의 현실 공감

'남매…' 10대 소녀가 겪는 사건
'69세' 노년의 일상과 아픔 담아
'디바' 성공을 향한 여성의 욕망

10대와 여성 그리고 노인의 삶을 그린 영화가 잇단 호평 속에 관객을 만나거나 만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의 아픔과 여성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워 현실의 이야기를 그리는 작품들이다. 현재 상영 중인 영화 '남매의 여름밤'을 비롯해 '오! 문희'와 '69세', '오케이 마담' 등과 이달 말 개봉을 앞둔 '디바'와 '돌멩이' 등이다.

'남매의 여름밤'은 10대 남매가 할아버지 집을 찾아가 겪는 이야기이다. 30일 개봉작 '돌멩이'는 8세 지능을 가진 청년과 10대 소녀가 겪는 사건을 그린다. '오! 문희'와 '69'세는 노년의 일상을 살아가는 두 여인에게 몰아닥친 현실의 아픔을 드러낸다. '오케이 마담'은 코미디의 포장 안에 여성의 주체적 모습을 담아냈고, '디바'는 여성 캐릭터를 앞세워 성공을 향한 집착의 욕망을 지닌 다이버의 이야기를 펼친다.

각 영화에 대한 호평도 잇따른다.

'남매의 여름밤'은 최근 산세바스티안국제영화제 등 해외 영화제에 연이어 초청받았다. '69세'도 더 원 국제여성영화제 등에서 관객을 만난다. 그만큼 작품적 완성도를 인정받은 셈이다. '오! 문희'는 2일 개봉해 전국 13만여명(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관객을 모아 박스오피스 2위에 당당히 올랐다. '디바'는 최근 여성 캐릭터가 이끄는 이야기가 극장가에 내걸리는 주요 간판의 흐름을 이어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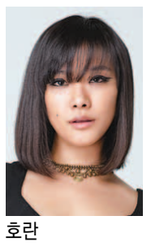
각 작품은 10대와 노년의 삶, 또는 여성 캐릭터가 이끄는 이야기를 통해 현실을 극화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회 속 다기한 계층 가운데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이들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현실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낸다는 평가다.

또 일부 흥행 기대작들이 감염병 사태 속에서 개봉을 연기하는 가운데 예정된 일정으로 관객에게 선보이고 있다.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아가려는 사회적 약자들의 모습처럼 대부분 저예산 제작비로 만들어진 수작의 성과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영화계는 내다보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5

호란 "사적 만남 요구 계정 차단할 것"


호란

가수 호란이 '사적 만남'을 요구한 일부 누리꾼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호란은 6일 밤 SNS를 통해 "사적인 관계나 만남을 요구하는 분들의 계정을 바로 차단하겠다"면서 "악의는 없을 거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소통의 창으로 열어놨는데 그렇게 방치한 게 오히려 잘못된 만남을 부추기는 결과를 불렀다"고 밝혔다. 이어 "선을 넘어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게 좌절됐을 때 욕하고 매도하는 걸 감당하기 힘들다. 앞으로도 SNS는 개인적인 만남을 사주하는 것으로 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준일 노래 4곡 저작권 무단 도용 의혹


양준일

가수 양준일이 저작권 무단 도용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양준일이 1992년 발표한 2집 '댄스 위드 미 아가씨', '가나다라마바사', '파티인비테이션', '두 잇 투 미' 등 4곡의 작곡가가 P.B. 플로이드인데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누리꾼은 음저협 및 미국저작권위원회 아카이브 등록 기록, 국립중앙도서관 사전심의용 악보 등을 근거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양준일 측은 7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S.E.S 출신 가수 바다 "예쁜 딸 낳았어요"


바다

걸그룹 S.E.S. 출신 가수 바다가 7일 딸을 출산했다. 소속사 웨이브나인 측은 이날 "바다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건강한 딸을 낳았다"며 "현재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다"고 밝혔다. 바다는 소속사를 통해 "출산 직후 가장 먼저 팬들이 생각났고, 기쁜 소식에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와 축복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예쁜 딸과 만나게 되어 한 없이 기쁘고 벅차고, 따뜻한 사랑으로 선하게 잘 키우겠다. 가수 바다로 하루 빨리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고 싶다"고 말했다. 바다는 2017년 3월 9살 연하 사업가와 결혼했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온라인서도 22편 상영

10일 개막하는 제2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상영작 102편 가운데 22편을 온라인에서 동시 상영한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웨이브를 통해 개막작인 '여성영화인 지원 프로젝트:코로나 시대, 서로를 보다' 등을 선보인다. 개막식을 비롯해 변영주 감독과 연기자 김아중이 진행하는 '스타 토크' 등 행사도 온라인에서 진행한다. 극장 상영관은 규모와 상관없이 50인 미만의 관객만 수용하며 충분한 거리두기와 지정좌석제로 운영한다. 영화제는 16일까지 서울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펼쳐진다.

보이그룹 VAV 멤버 바론, 육군훈련소 입소

아이돌 그룹 VAV의 멤버 바론(최충협·28)이 7일 육군 신병훈련소에 입소해 군 생활을 시작한다. 소속사 에이팀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바론이 군사훈련을 마친 뒤 현역으로 복무한다"고 밝혔다. 입대 장소와 시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등에 따른 안전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VAV 멤버들은 바론과 훈련소 앞까지 동행해 배웅했고, 소속사 측은 모든 멤버가 훈련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공식 SNS를 통해 공개했다. 바론의 입대로 15일 발표하는 여섯 번째 미니음반 활동은 6인 체제로 나선다.

편집 | 안도영·유진한 기자